

## 崔顥의 「長干行」 試析\*

柳瑩杓\*\*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詩의 地名 고찰
3. 제1수와 제2수의 내용 고찰
4. 제3수와 제4수의 내용 고찰 및 「長干行」 4수의 연작시 여부 검토
5. 맺는말

### 【초록】

崔顥의 「長干行」은 모두 네 수의 시가 있다. 제1수와 제2수에는 橫塘, 長干, 九江 등의 지명이 출현한다. 橫塘은 현 南京의 秦淮河에 쌓았던 제방이고, 長干은 橫塘에 잇닿아 있던 洞里的 명칭이다. 九江은 현 江西省 九江市를 가리킨다. 제1·2수의 여인과 남성이 현재 거주하는 곳은 橫塘 곧 長干이며, 고향은 九江이다. 여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웃 배의 남성에게 갑자기 고향을 질문하게 된 까닭은, 남성의 고향사투리를 듣고 향수에 빠졌기 때문이다. 제3수와 제4수는 연습을 따는 여인이 남성과 나눈 대화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詩的인 감흥이 부족하며, 제1·2수와는 내용과 풍격 등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 「長干行」 4수는 연작시가 아니며, 따라서 제3·4수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1·2수의 내용을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 「長干行」 4수는 제1수와 제2수가 하나의 연작시, 제3수와 제4수가 또 하나의 연작시인 것이다.

【키워드】 崔顥, 長干行, 長干, 橫塘, 九江

\* 이 연구는 2014년도 경성대학교 연구년 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l2448@ks.ac.kr)

## 1. 문제의 제기

崔顥(704?~754)는 지금의 河南省 開封 사람이며 玄宗 開元 11년(723)에 진사에 급제했다. 그는 젊어서 江南지방을 유람했으며 監察御史, 司勳員外郎 등의 그다지 높지 않은 관직을 지냈다. 그는 살아생전에 시인으로서 명성을 날렸으며, 특히 그의 「黃鶴樓」시는 李白으로 하여금 붓을 들지 못하게 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長干行」은 그가 강남지방을 유람하면서 쓴 시이다.

최호의 「장간행」은 「長干曲」이라고도 불리며 모두 네 수가 있다. 그 가운데 제1수와 제2수는 『唐詩三百首』에 수록되어 있으며 역대로 많은 풀이가 있어왔다. 이에 비해 제3수와 제4수는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풀이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

「장간행」 4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의 해석을 함께 제시한다.

### 제1수

君家何處住,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요?  
妾住在橫塘. 저는 횡당에 살고 있어요.  
停船暫借問, 배를 멈추고 잠시 물어보는 것은,  
或恐是同鄉. 혹시 고향사람인가 해서요.

### 제2수

家臨九江水, 나의 집은 구강 물가에 있고,  
來去九江側. 구강 곁을 오가고 있소.  
同是長干人, 함께 장간에 살면서도,  
生小不相識. 어려서부터 서로 알지 못했구려.

### 제3수

下渚多風浪, 아래쪽 모래섬에 풍랑이 일어,  
蓮舟漸覺稀. 연밭 따는 배가 점점 드물어져요.  
那能不相待, 어찌 기다리지 않겠어요,  
獨自逆潮歸. 홀로 조수 맞으며 돌아가게요.

### 제4수

三江潮水急, 삼강에 조수 급하고,  
五湖風浪涌. 오호에는 풍랑이 일렁이구려.  
由來花性輕, 본래 꽃은 성질이 가벼우니,  
莫畏蓮舟重. 연밭 따는 배가 무거울까 겁내지 마시구려.

「장간행」 4수는 樂府民歌의 체제를 본떠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1수는 여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이웃 배에 탄 남성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장면을,

그리고 제2수는 이 여성의 질문에 대해 남성이 대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제3수는 연밥 따는 여인이 남성에게 한 말이고, 제4수는 그것에 대한 남성의 응대이다.

이 「장간행」 4수는 악부민가의 전통을 따라 쓴 시이며 화려하거나 수사적인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에 등장하는 몇 개의 지명만 이해한다면 시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그다지 까다롭지 아니하다.

그러나 정작 이 시는 해설자에 따라 그 내용의 설명에 크게 차이가 나며, 제가의 해설은 또 필자의 견해와도 크게 엇갈린다. 이 시의 해설이 서로 다른 까닭은 첫째, 이 시에 출현하는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둘째, 이 시의 제1수와 제2수에서 여인이 남성에게 갑자기 고향을 묻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셋째, 이 「장간행」 4수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연작시, 곧 組詩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에 관한 해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장간행」 4수에는 橫塘, 九江, 長干, 三江, 五湖의 다섯 개의 지명이 출현한다. 이 가운데 제4수에 출현하는 三江과 五湖는 장간 부근의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강과 호수를 가리키는 泛稱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 시를 해설하는 제가의 견해가 일치하며, 필자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제1수와 제2수에 출현하는 橫塘과 장간이 현 南京에 있었던 지명이라는 것에도 제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제2수의 구강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해설이 있어왔다. 하나는 구강이 제3수의 三江이나 五湖처럼 범칭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 南京 부근의 長江 일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강을 구체적인 지명, 곧 현 江西省의 九江市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구강이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범칭이며 장간과 가까운 장강 하류일대를 가리킨다고 해설하는 까닭은, 필자의 견해로는, 제2수의 “同是長干人”의 해석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地名 + 人”의 문장구조에서 그 지명은 통상 그 사람의 관적이나 고향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제1수와 제2수의 남성과 여성의 고향은 모두 장간 또는 장간 부근이 되어버린다. 구강이 현 강서성의 구강이라고 보는 해설서들도 거의 대부분 제1수와 제2수의 남성과 여성의 고향을 장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同是長干人”의 “長干”을 두 남녀의 고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필자는 의문이 없지 않다.

둘째, 제1·2수에 출현하는 여인이 남성에게 갑자기 고향을 질문한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설이 있다.

그 하나는 이 여인이 남성을 보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은 대체로 「장간행」 4수를 하나의 연작시라고 간주하며, 제1·2수의 여인과 남성이 제3·4수에 이르면 마침내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 둘은 이 여인이 스스로 짝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에 따르면 이 「장간행」 4수는 이른바 “春宮圖”와 유사한 성격이 되어버린다.

그 셋은 이 여인이 타향에서 우연히 고향 사투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서 실례를 무릅쓰고 낯선 남성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해설에 따르면 이 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純正한 시가 된다.

셋째, 「장간행」 4수 전체를 하나의 연작시로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당시삼백수』에는 「장간행」의 제1수와 제2수만 수록되어 있지만 「장간행」 4수 모두를 설명하는 해설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시들을 연작시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럴 경우 「장간행」 4수는 연밥 따는 여인의 사랑을 읊은 시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견해에 또한 의문이 없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에 출현하는 지명들을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제1수와 제2수의 여인과 남성이 주고받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면 이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同是長干人”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또한 이 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2. 詩의 地名 고찰

제1수와 제2수에는 橫塘과 長干 및 九江이 출현한다. 필자는 이 세 곳의 지명들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唐代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시에는 비록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璜당 및 장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秦淮河가 어디인지, 또 唐代의 진회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① 橫塘, 秦淮河, 長干

#### i) 橫塘

“璜당”은 三國 吳나라 때의 도성인 建業(현 南京)의 石頭城 남쪽에서부터 현 南京市를 관통하여 長江과 합류하는 진회하 일대에 길게 쌓은 제방의 명칭이다. 이 璜당이 현 南京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가는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설명에 차이가 난다. 璜당에 관한 대표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다.

a. 『南京地名大典』: 璜당은 석두성 남쪽의 內秦淮河 남안에 쌓은 제방이다. 현 南京의 석두성 남동쪽에서 通濟門 밖까지의 지역이 璜당에 해당한다.<sup>1)</sup>

b. 薛冰, 『南京城市史』: 삼국시대 오나라 때 석두성에서 장강 기슭을 따라 남쪽으로 쌓은 긴 제방이 璜당이다. 璜당의 옛터는 석두성에서 현 南京의 水西門까지이다.<sup>2)</sup>

c. 許志强, 『六朝建康長干里考略』: 璜당은 삼국 오나라 때 장강의 조수가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강가에 쌓은 제방이다. 진회하가 장강의 조수 때문에 불어나 넘치는 것을 방지

1) 『南京地名大典』, pp.979-980 (南京地名大典編纂會, 南京出版社, 2012, 南京): “橫塘: 位于石頭城南再折向東, 內秦淮河南岸一帶地區。『六朝事跡編類』載, 吳大帝時, 自江口沿淮水之南築堤謂之橫塘。… 今自石頭城南而南東至通濟門外皆其地也” 참조. 단 璜당이 通濟門 밖까지라는 해설은 믿기 어렵다. 현 南京의 內秦淮河에서 통제문 밖까지는 ‘長干’에 해당한다.

2) 薛冰, 『南京城市史』, p.88 (東南大學出版社, 2015, 南京): “三國年間, 東吳自石頭城沿江岸向南築長堤, 稱爲橫塘, 故址在今石頭城到水西門一帶” 참조.

하기 위하여 진회하 河口의 양안에 박아 놓은 木柵은 柵塘이라고 한다.<sup>3)</sup>

d. 田夢曉, 『莫愁湖與南京城西側水系關聯性研究』: 東吳 때 진회하의 하구에 쌓은 긴 제방을 횡당이라고 하며, 진회하 북측의 柵塘과 이어져 있다.<sup>4)</sup>

이렇게 횡당의 위치에 관한 해설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 횡당이 삼국시대 오나라 때 진회하가 장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부터 진회하를 따라 쌓은 제방이라고 이해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호가 「장간행」에서 읊은 횡당을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다. 宋代 이후로 횡당 서쪽의 장강 기슭에 토사가 쌓이고 장강의 본류가 북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에 크고 작은 湖沼가 형성되어 횡당 일대의 지모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南京地名大典』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 南京의 水西門 서쪽에 있는 莫愁湖 일대가 옛 횡당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다.<sup>5)</sup>

## ii) 秦淮河

진회하는 현 南京 중심지를 흘러 장강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唐代까지 建康 중심부를 흐르는 진회하는 한 줄기였지만 五代十國의 吳, 곧 楊吳 때 建康에 도성을 건설하면서 성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南京의 通濟門 곁의 진회하로부터 성곽 바깥쪽을 둘러 현 水西門에 이르기까지 인공하천을 뚫었다. 이로부터 진회하는 원래의 진회하인 內秦淮河와 護城河인 外秦淮河의 둘로 나뉘어 흐르게 되었다. 현 南京의 夫子廟 앞을 흐르는 진회하가 내진회하이다.<sup>6)</sup>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내진회하의 너비는 20m가 채 되지 않지만 육조 시대의 진회하의 너비는 약 140m에 달하여 배의 항행이 아주 원활했다.<sup>7)</sup>

## iii) 長干

六朝와 唐代의 장간은 진회하 남안에 위치한 洞里的 명칭이며, 육조 때에는 大長干, 小長干, 東長干으로 나뉘어 있었다. 장간은 육조 때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던 상업구역이었다. 이 장간은 현 南京의 內秦淮河 남쪽 및 外秦淮河 남쪽에서 雨花臺 북쪽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이었다.

- 3) 許志强, 「六朝建康長干里考略」, p.76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6輯, 2017년 2기, 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研究所, 上海古籍, 2017.11, 上海): “孫吳政府在秦淮河入江口附近沿河築堤立柵, 約束河道, 稱‘柵塘’, 防止河水因潮漲溢; 又緣江往上築‘橫塘’, 防止江潮的侵襲, 并在附近的秦淮水北岸建大市” 참조. 한편 『南京地名大典』은 清代에 편찬된 『金陵覽勝詩考』를 인용하여 진회하의 남안에 쌓은 제방을 ‘橫塘’, 궁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회하의 북안에 제방과 함께 나무말뚝을 잇달아 박아놓은 것을 ‘柵塘’이라고 설명했다.
- 4) 田夢曉, 『莫愁湖與南京城西側水系關聯性研究』, p.48 (東南大學 碩士論文, 2016): “在秦淮河口有長堤, 爲東吳時期建造, 稱之爲‘橫塘’, 并與北側的柵塘相連” 참조.
- 5) 『南京地名大典』, p.980 “橫塘” 참조. 田夢曉는 南京의 莫水湖의 명칭이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元代 말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田夢曉, 앞의 논문, p.19 註40 참조.
- 6) 필자의 서술은 田夢曉, 앞의 논문, pp.49-50을 참조한 것이다.
- 7) 許志强, 앞의 논문, p.83: “今秦淮河的寬度已不足20米, 但六朝時期的秦淮河河面寬廣, 建在河面上的朱雀航‘長九十步’, 約合今140米左右” 참조.

이렇게 횡당과 진회하 그리고 장간의 구체적인 장소를 고찰하면, 이 세 곳이 현 南京의 동일한 지역에 함께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논문의 말미에서 田夢曉와 許志強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횡당과 진회하 그리고 장간의 위치를 [그림1]과 [그림2]로 제시한다.<sup>8)</sup>

횡당은 진회하 남안에 쌓은 제방이었지만 西晉 때에 이미 民家들이 들어서 있었다. 左思는 『吳都賦』에서 “횡당과 사하에는 집들이 화려함을 다투며, 장간에는 가옥들이 잇대었고 추녀가 서로 뒤엎혀 있다”(橫塘查下, 邑屋隆夸. 長干延屬, 飛甍舛互)<sup>9)</sup>라고 하여 횡당과 장간의 민가들이 번성하던 모습을 읊고 있다. 현 南京市를 흐르는 진회하가 강폭이 좁아 겨우 유람선이나 띄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한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육조 때의 진회하는 강폭이 넓었을 뿐 아니라 도성에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수로였기 때문에 그 포구와 항구 역할을 하던 횡당 및 장간 일대가 이렇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육조 때까지 번성하던 진회하와 장간 일대는 隋·唐 때에는 많이 쇠락하게 된다. 수나라가 남조의 陳나라를 멸한 뒤에 건강의 도성을 철저히 파괴하여 경작지로 만들었으며,<sup>10)</sup> 당나라 또한 수나라의 정책을 계승하여 건강의 발전을 극도로 억누르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록 건강의 도성이 파괴되어 정치적인 위상이 추락했지만 수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건강에는 長安이나 洛陽 못지않게 상점들이 번성했으며 각지의 상인들이 건강에 모여들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sup>11)</sup>

이렇게 흥성하던 건강의 상업 활동은 당나라로 접어들면서 많이 쇠락하게 된다. 그것은 수나라 때 뚫던 大運河가 당나라 때 제대로 기능하면서 건강보다 조금 동북쪽에 있는, 장강과 대운하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揚州가 물자의 집산과 운송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었다.<sup>12)</sup> 그러나 건강 일대의 상업 활동이 당나라 때에 멈춘 것은 결코 아니었다. 『南京城市史』에 따르면, 비록 육조의 도성이나 官署 등은 수나라 때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지만 진회하 양안, 특히 진회하 남쪽에 밀집된 주민 거주지역과 상업지역은 파괴되지 않았다.<sup>13)</sup> 현 南京은 당나라 때에도 동남 지역의 교통과 漕運의 주요 허브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었으며<sup>14)</sup> 당시에 장간은 건강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주거 지역이자 가장 변화한 상

8) <그림1> 田夢曉, 앞의 논문, p.10. / <그림2> 許志強, 앞의 논문, p.81.

9) 『文選·吳都賦』의 唐代 六臣注인 “橫塘查下, 閭巷名” 및 “橫塘查下, 皆百姓所居之區名”에 따르면 橫塘과 查下는 백성들이 거주하던 골목의 명칭이었다. 正文社의 『文選』 p.134(1983, 서울) 참조.

10) 『資治通鑑』권177 「隋紀一」: “詔建康城邑宮室, 并平蕩耕墾” 참조.

11) 『隋書·地理志』에는 건강의 상업 활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단양은 육조의 옛 수도 소재지이며, 사람과 물품이 본래부터 번성하고 있다. 하류층은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상류층은 관청의 봉록에 의지한다. 저자의 늘어선 집포에는 사람들이 長安이나 洛陽처럼 벽적벽적하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풍속이 아주 비슷하다.”(丹陽舊京所在, 人物本盛. 小人率多商販, 君子資于官祿. 市廛列肆, 埒于二京. 人雜五方, 故俗頗相類.) 필자의 해설은 『南京城市史』, p.84의 해설을 참고한 것이다. 단 이 인용문의 “人雜五方, 故俗頗相類” 구절은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12) 陳勇, 『唐代長江下游經濟發展研究』(上海人民出版社, 2006), p.249: “揚州, 地處運河和長江的交匯處, 是長江下游地區經濟最發達的工商業都市” 및 生力剛, 『唐代揚州交通與詩歌創作研究』(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2), 「中文提要」: “唐代揚州得天獨厚的地理條件, 成就了它無與倫比的交通優勢. 揚州‘襟江’、‘控河(大運河)’、‘距海’, 三位一體, 決定了它在長江、運河和海上航運的領先地位” 참조.

13) 『南京城市史』, p.80: “對於秦淮河兩岸, 尤其是秦淮河以南密集的居民區, 隋王朝是并不打算破壞的” 참조.

14) 『南京城市史』, p.84: “不過, 隋·唐時期, 南京地區的成長並沒有停止. 一方面, 由于建康時期都城與居民

업 지역이었고, 횡당은 상인들이 배를 타고 출항하던 주요한 통로였다.<sup>15)</sup> 『南京城市史』는 그렇게 번성하던 장간 일대의 상업 활동을 읊은 예로 李白의 「長干行」,<sup>16)</sup> 張潮의 「長干行」,<sup>17)</sup> 王建的 「江南三臺」<sup>18)</sup> 등의 시가들을 들고 있다.

唐代에 횡당과 장간 그리고 진회하 일대에는 상업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물자와 상인들이 모여듦에 따라 이 지역에는 자연히 酒樓가 적지 않았다. 진회하 일대의 주루를 읊은 唐詩 가운데 長干이나 秦淮와 같은 구체적인 지명이 출현하는 것으로는 李白의 「翫月金陵城西孫楚酒樓」<sup>19)</sup>, 張籍의 「江南行」, 杜牧의 「泊秦淮」<sup>20)</sup>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張籍의 「江南行」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張籍, 「江南行」  
江南人家多橘樹, 강남에는 집집마다 귤나무가 많고,  
吳姬舟上織白紵. 오나라 여인들이 배 위에서 모시옷을 짠다.  
土地卑濕饒蟲蛇, 토지가 낮고 습하여 벌레와 뱀이 많아,  
連木爲牌入江住. 나무를 잇대고 뗏목을 엮어 강 위에서 거주한다.  
江村亥日長爲市, 강촌에 해일이면 늘 장이 서고,  
落帆渡橋來浦裡. 돛을 내린 배들이 다리를 지나 포구로 들어온다.  
靑莎覆城竹爲屋, 푸른 향부자가 가득한 성에 대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無井家家飲潮水. 우물이 없어 집집마다 강물을 마신다.  
長干午日沽春酒, 장간에선 한낮에 봄술을 파는데,  
高高酒旗懸江口. 높다랗게 술집 깃발이 강어귀에 걸려 있다.

區·商業區的遠相隔離, 建康都城在隋初被廢棄, 居民區、商業區並沒有破壞, 正常的經濟活動與社會生活仍在進行; 另一方面, 六朝時期奠定的厚實的經濟、文化基礎, 絕不是簡單的行政命令所能消解得了的. 再加上, 優越的自然地理條件和交通樞紐地位, 隋唐時期, 金陵仍是東南驛道和漕糧轉運的重要樞紐之一” 참조.

- 15) 『南京城市史』, p.88: “秦淮河畔的長干里, 在唐代仍是南京最稠密的居民區和最繁華的商業區, 橫塘則是商民駕船出航的重要通道” 참조.
- 16) 李白의 「長干行」은 長干里 출신의 남녀가 결혼하여 그 남편이 三峽까지 장사를 떠나자 아내가 남편이 무사귀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읊은 시이다. 널리 알려진 시이어서 인용을 생략한다.
- 17) 張潮의 「長干行」은 巴東까지 장사를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 현지의 여인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내의 심정을 읊은 노래이다.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 “강물 위에는 남풍이 많이 불고, 상인들은 모두 돌아오려 해요. 그대는 아직도 파동에 있는데, 파동에는 무산이 있지요. 그곳의 여인들 신너처럼 아리따운데, 그대가 참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江上多南風, 商賈歸欲盡. 君今尙巴東, 巴東有巫山. 窈窕神女顏. 常恐遊此山, 果然不知還) 참조. 이 작품은 『樂府詩集·雜曲歌辭』(권72)에 수록되어 있다.
- 18) 王建的 「江南三臺」는 모두 네 수인데 그 첫째 수는 다음과 같다. “양주 다리 걸 짙은 아낙, 장간 저자거리의 상인. 3년이나 소식을 알지 못해, 각자 귀신에게 기도한다.”(楊州橋邊小婦, 長干市裏商人. 三年不得消息, 各自拜鬼求神.) 『樂府詩集·雜曲歌辭』(권75) 참조.
- 19) 李白의 「翫月金陵城西孫楚酒樓」는 五言 30구의 古詩이며, 완전한 제목은 「翫月金陵城西孫楚酒樓, 達曙歌吹, 日晚乘醉著紫綺裘. 烏紗巾, 與酒客數人棹歌秦淮, 往石頭訪崔四侍御」(금릉성 서쪽 손초의 주루에서 달구경을 하다가 새벽이 되도록 노래하며 악기를 불었는데, 해가 저물어 취한 김에 자긋빛 비단 갓옷을 입고 오사건을 쓰고, 술꾼 여러 명과 함께 진회하에서 뱃노래를 부르면서 석두성으로 시어사 최성보를 찾아가다)이다. 이 손초의 주루는 橫塘에 있었다. 『江南通志』(권30)의 “孫楚酒樓, 在江寧縣城西. 焦竑集云: 孫子荆酒樓, 遺址在今石頭城莫愁湖側” 참조.
- 20) 杜牧의 「泊秦淮」: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 참조.

倡樓兩岸臨水柵, 강기슭 양쪽 목책 곁으로 기루가 들어섰고,  
夜唱竹枝留北客. 밤이면 죽지사를 노래하며 북쪽 나그네를 붙잡는다.  
江南風土歡樂多, 강남의 풍토에는 즐길 일이 많아,  
悠悠處處盡經過. 느긋하게 곳곳을 두루 돌아다닌다.

장적의 시는 唐代 장간의 풍속을 세밀히 묘사했는데, 이 시를 통하여 장간의 포구로서의 모습, 주루의 번성함 등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倡樓兩岸臨水柵” 구절은 진회하의 양안에 목책을 박아 세웠다는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것이다.

## ② 九江

구강은 기본적으로 현 江西省의 九江市를 가리킨다. 구강은 장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또 鄱陽湖를 끼고 있어서 예로부터 물자의 집산과 운송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항구였다. 鄒逸麟은 唐代의 구강을 대운하의 통행과 水運으로 발달한 상공업 도시 가운데 장강 沿線에 있는 도시에 포함시키고 있다.<sup>21)</sup>

그러나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최호의 「장간행」에서의 구강을 강서성의 구강이 아니라 장강 하류 일대를 가리키는 범칭이며, 장간과 가까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해설의 무리한 점에 대해서는 시의 내용을 풀이할 때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 3. 제1수와 제2수의 내용 고찰

「장간행」 4수 가운데 제1수와 제2수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이 두 수의 시에는 서로 다른 해설들이 있어 왔다. 따라서 「장간행」 전체의 시를 이해하기에 앞서 제1수와 제2수의 내용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고 서로 다른 해설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수에서 여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웃 배에 타고 있는 남성에게 문득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요?”라고 묻고, 자신이 현재 횡당에 살고 있다고 알리면서, 남성에게 질문을 던진 까닭은 바로 이 남성이 자신과 고향이 같지나 않을까 추측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제2수에서 남성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집이 구강에 있고 현재 구강 곁을 오가고 있으며, 함께 장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서로 알지를 못해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 두 수의 시를 이해하는 데에는 먼저 이 시가 지어진 공간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21) 鄒逸麟, 『中國歷史地理概述』, p.337(上海教育出版社, 2007): “長江及其主要支流沿線有成都, 荊州(今江陵), 鄂州(今武昌), 潭州(今長沙), 岳州(今岳陽), 江州(今九江), 洪州(今南昌), 襄州(今湖北襄陽)等等” 참조. 이 논문의 말미에 唐代의 九江(곧 江州)과 建康(곧 江寧)의 위치를 <그림3>으로 제시한다.

22) 莫礪鋒은 九江이 장강 하류의 수많은 지류 가운데 하나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秦淮河를 가리킨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의 「繁簡各得其妙的三首《長干行》」(『文史知識』, 2011년 3기, p.52): “‘九江’泛指長江下游的衆多支流, 這裏當即指秦淮河而言” 참조.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횡당과 장간은 당나라 때에 바로 잇닿아있던 제방과 동리의 명칭이다. 또 이 시는 배를 타고 가다가 주고받은 문답이며, 시의 주인공들이 문답을 주고받은 곳은 강물 위이다. 그리고 그 강물은 장강의 도도한 물길 위가 아니라 수운이 편리하고 배의 통행이 빈번했던, 장간과 횡당을 끼고 흐르는 진회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sup>23)</sup>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배를 타고 가다가 이웃 배에 타고 있는 처음 보는 남성에게 느닷없이 고향이 어디냐고 묻게 된 것인가? 이 여인이 남성에게 질문을 던진 계기에 대해서는 역대로 크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설이 있어왔다.

하나는 이 여인이 상대방에게 한눈에 반하여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은 이 시의 제1수와 제2수를 우연히 만난 남녀 사이의 연애시로 보는 것이며, 그 해설의 대표자는 俞陛云(1868~1950)과 馬茂元(1918~1989)이다. 俞陛云의 『詩境淺說』에서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제1수는 이미 남성의 집을 묻고 또 자신의 거처를 말했으니, 그 정서와 문장의 맛이 어떻게 이토록 빈틈이 없는가! 동향인가 아닌가가 무슨 상관이 있으랴만 이에 배를 멈추고 물어보니, 사랑의 올가미가 마침내 높은 하늘에서 떨어진다.

제2수는 제1수의 동향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서부터 장간에 함께 살았다고 말하면서 소꿉놀이 하던 어린 시절에 알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서로 만남이 늦었다고 한탄한다.

제3수는 작별할 즈음에 못다 나눈 정을 묘사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많이 부니, 조수를 맞으며 홀로 돌아가기가 무척 겁난다. 전송하는 장면이 정성스러우며, 부드러운 마음씨와 아름다운 생각은 죽지나 수조의 남겨진 맛이 있다.<sup>24)</sup>

俞陛云은 최호의 「장간행」 4수를 「長干曲」이라는 題名 하에 제1, 제2, 제3수만 수록하고 해설했으며<sup>25)</sup> 이 세 수의 시를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연작시로 간주했다.<sup>26)</sup> 그는 이 여인과

23) 唐代的 장강의 河口는 오늘날처럼 上海 부근이 아니라 현 南京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鎮江과 揚州 가까이 있었다. 따라서 당나라 당시에 현 南京 일대를 굽이쳐 흐르는 장강의 물결도 조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王曙, 『新編唐詩故事集 — 黃河長江親情篇』(北京工業大學出版社, 2001), pp.829~830: “唐代時, 長江口像一個巨大的喇叭, 江口最寬處達一百八十里. … 長江入海口附近的大城市是揚州和潤州(今江蘇鎮江), 當時曾被稱作‘海門’. 就在揚州和潤州之間, 水面寬度也超過了十公里. 到了現代, 由于一千多年間長江帶來大量的泥沙淤積, 長江口出現了大片陸地, 江口寬度減為九十里, 揚州不僅不再是靠海的城市, 而且附近的江面寬度也只有二至三公里了” 및 陳勇, 『唐代長江下游經濟發展研究』(上海人民出版社, 2006) p.14: “據陳吉余先生研究, 在兩千年以前, 當時的長江口是一個近似喇叭形的河口, 一直到圖山以上揚州附近才見收縮, 因此海潮可直接上溯到圖山以上, 奔騰澎湃, 蔚為壯觀” 참조. 陳勇이 언급한 “圖山”은 현 鎮江市 30km 지점의 장강가에 우뚝 솟아있는 산이다. 이 논문의 말미에 서는 王曙가 같은 책 p.829에서 제시한 唐代的 長江 하구를 <그림4>로 제시한다.

24) 俞陛云, 『詩境淺說』, pp.130-131: “第一首既問君家, 更言妾處, 何情文周至乃爾. 是否同鄉, 干卿底事, 乃停舟相問, 情網遂憑虛而下矣. 第二首承上首同鄉之意, 言生小同住長干, 惜竹馬青梅, 相逢恨晚. 第三首, 寫臨別餘情, 日暮風多, 深恐其迎潮獨返, 相送殷勤, 柔情綺思, 有‘竹枝’‘水調’遺意”(北京出版社, 2003, 北京). 『詩境淺說』은 1936년 上海 開明書店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25) 俞陛云에 앞서 淸 王士禎이 編選한 『唐人萬首絕句選』(권1)에는 최호의 「장간행」 4수 가운데 제1·2·3 수만을 수록했다. 그러나 明 萬曆 연간에 趙宦光이 40권으로 編定한 『萬首唐人絕句』 권2(書目文獻出版社, p.31, 1983, 北京)에는 네 수의 시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26) 그러나 최호의 「장간행」 4수를 과연 연작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에서 상론하겠다.

남성이 어려서부터 장간에 함께 살았으며, 이 여인은 남성과 마주치자마자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고 해설했다. 또 제3수의 해설로 미루어보아 그는 이 여인의 신분을 采蓮女로 간주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곧 俞陞云은 이 세 수의 시가 연발을 따는 여인과 남성의 사랑을 읊은 시이며,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장간이라고 해설한 것이다. 그러나 횡당과 장간은 모두 진회하를 끼고 잇닿아 있는 지명들이다. 이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모두 횡당, 곧 장간이라면, 이 시는 이 여인이 고향에서 연발을 따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배를 멈추고 곁을 지나가는 배에 탄 남성에게 고향을 물어본 다음에 남성의 답변을 통해 남성과 고향이 같다는 점을 알게 되고 마침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읊은 것이 된다. 이러한 만남의 설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고향 땅에서 남성에게 고향이 같으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고향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면, 시의 구도가 어색해지고 詩想 전개의 긴장감이 느슨해져버린다. 더욱이 俞陞云은 「장간행」의 제4수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의 주요 지명인 구강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俞陞云의 해설은 馬茂元으로 계승된다. 馬茂元은 『唐詩選』에서 俞陞云처럼 「장간행」의 제1, 제2, 제3수만을 수록하고 해설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수: 첫 두 구는 여인이 남성에게 묻는 말이며, 다음 두 구는 질문한 까닭을 서술했다.

제2수: 자신은 비록 장간 사람이어서 서로 동향이지만, 그러나 고향에 있을 때는 나이가 아직 어렸고, 줄곧 외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여인과 만나면서도 알아보지 못한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고대의 장강은 潯陽(현 강서 九江)까지 흘러오면 아홉 개의 지류로 나뉜다고 한다. 여기서의 「구강」은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을 총괄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제3수: 연발을 따는 여인들은 늘 배를 나란히 대고 짝을 지어 가게 마련인데, 이 여인은 남성과 이야기에 열중하여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연발을 따는 다른 배들이 벌써 흩어져 가버렸다. 마지막 두 구에서 한 말은, 이 여인이 날이 저물어 풍량이 차츰 일렁일 무렵에 상대방에게 그녀와 배를 나란히 하고 돌아가기를 요구한 것이다.<sup>27)</sup>

馬茂元은 이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장간이며, 남성이 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이 남성이 고향인 장간을 떠나 외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俞陞云처럼 이 여인은 연발을 따고 있다고 보았다.

馬茂元의 해설에서 새로운 점은, 구강을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을 총괄하여 가리키는 말로

27) 馬茂元, 『唐詩選』上, pp.118-119(人民文學出版社, 1960, 北京): “解題: 「長干行」, 是樂府舊題, 當地流行的民間歌曲。它以江南地區商業經濟發達為背景, 抒寫活潑而健康的生活情調, 多半是戀歌。所有文人的仿作, 也都是按照這一民間文藝的傳統而來加工改寫的。” / 제1수: “這兩句是女方問男方的話, 下兩句敘述問話的緣由。” / 제2수: “自己雖然是長干人, 彼此同鄉, 可是在家鄉時年紀還小, 一向在外經商, 所以相見而不相識。據說, 古代大江流至潯陽(今江西九江), 就分成九派(支流)。這裏的「九江」, 是泛指長江下游一段。” / 제3수: “采蓮的女郎們總是連船結伴而來的, 因這女子和男子攀談很久, 所以別的蓮船漸以散去。這兩句話, 是女子要求對方在傍晚風浪漸起的時候, 和她連船歸去” 참조. 단 馬茂元의 『唐詩選』은 수정 및 보완되어 1999년 上海古籍에서 다시 출간되었는데, 이 수정본은 崔顥의 「長干行」 4수 전체를 수록하고 해설했으며, 말미에는 王夫之의 評語를 인용하는 등 이 시 전체의 예술성을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수정본의 해설 각도는 1960년에 출간된 판본과 일치한다. 수정본의 pp.178-180 참조.

풀이한 것이다. 구강은 일반적으로 현 江西省의 九江市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馬茂元의 해설은 통하지 않게 된다. 여인의 고향이 황당이고 남성이 강서성의 구강 사람이라면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馬茂元은 구강을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범칭이며,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이라고 설명한 듯하다. 그래야만 여인과 남성이 동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馬茂元의 해설에 따르면, 결국 이 여인은 고향에서 고향 남성을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진 것이 되며, 이는 俞陞云의 해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더욱이 제1수와 제2수에 출현하는 지명들인 ‘황당’과 ‘장간’ 등이 구체적인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구강’ 하나만을 범칭이라고 한 馬茂元의 설명에는 무리가 있다.

俞陞云과 馬茂元의 이러한 해설은 그 영향력이 매우 커서 최호의 「장간행」을 해설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특히 구강을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을 총괄하여 가리킨다”(九江, 是泛指長江下游一段)는 馬茂元의 해설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다.<sup>28)</sup>

그 둘은 「장간행」 제1·2수를 여인이 스스로 짝을 구하는 과정을 읊은 시로 보는 것이다. 이런 해설의 대표자는 喻守眞(?~1949)이다. 그는 『唐詩三百首詳析』에서 「장간행」 제1·2수의 창작 의도를 “이 두 수의 시는 남녀상열지사이다. 배를 멈추고 물어보면서 스스로 향관을 말했으니, 스스로 짝을 구하려는 뜻이 있다”<sup>29)</sup>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제1수와 제2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두 수의 시 가운데 제1수는 남성에게 묻는 것이고, 제2수는 스스로 답을 한 것이다. 제1수는 먼저 남성이 어디 사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어서 여인이 자신의 고향을 밝혔다. 또 자신의 직업이 비천하여 동향 사람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배를 멈추고 남자가 사는 곳을 물어보아야만 안심할 수 있다. 여인의 부끄러워하는 속마음을 눈에 잡힐 듯이 그려내었다. 제2수는 여인이 구강을 왕래하는 까닭을 스스로 밝혔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원래 동향임을 알게 된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또 비웃음에 대해 스스로 변명하는 뜻이 있다.<sup>30)</sup>

喻守眞의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제1수와 제2수를 여인의 자문자답이라고 보았고 또 “九江”을 “곧 강서성 구강현”(即今江西九江縣)이라고 주석한 것이다. 喻守眞은 이 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황당인 여인이 생계를 위해 강서성의 구강을 왕래하고 있고, 여인은 남의 비웃음

28) 九江을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이라고 풀이한 대표적 해설서들은 다음과 같다.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唐詩選注』(p.74, 北京出版社, 1978) / 房開江·潘中心 編, 『唐人絕句五百首』(p.394, 貴州人民出版社, 1981, 貴陽) / 林庚·馮沅君 主編, 『中國歷代詩歌選』(p.320, 人民文學出版社, 1984, 北京) / 萬竟君, 『崔顥詩注·崔國輔詩注』(p.44, 上海古籍, 1985) / 彭慶生·張仁健 主編, 『唐詩精品』(p.47, 北京燕山出版社, 1992) / 黃屏, 『古詩海』(p.560, 上海古籍, 1992) / 胡漢生, 『唐樂府詩譯析』(p.108, 北京大學出版社, 1997)

29) 喻守眞, 『唐詩三百首詳析』, p.283: “此係男女相悅之詞, 停船借問, 自道鄉貫, 有自媒之意.”(1957, 中華書局, 北京. 이 책은 1975년에 臺灣中華書局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페이지 수는 北京本과 동일하다.)

30) “兩詩前詩是問人, 後詩是自答. 前詩先問君家住處, 接說自己鄉貫, 又恐自己所業卑賤, 恐是同鄉被其所笑, 故必停船借問個下落才放心, 寫出女兒羞澀心腸, 曲曲如見. 後詩又自白所以往來九江的原由, 至此始知原是同鄉. 因自小離鄉, 故不能相識. 又有自己解嘲之意.”(喻守眞, 같은 책, p.283)

을 살 우려가 있는 비천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제 횡당에서 고향 남자를 만나 그 남자에게 수작을 거는 과정을 읊은 것이라고 이해했다.

喻守眞은 이 여인의 직업이 비천하다고 풀이했는데, 이는 아마도 唐代의 횡당 및 장간에 상업이 번창했고 酒樓가 많았으며, 주루가 있으면 웃음을 파는 여인들도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喻守眞은 여인의 직업이 비천하며, 여인이 남성에게 접근한 까닭은 바로 웃음을 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喻守眞의 해설에 따르면, 이 여인은 고향에서 마주친 고향 남성에게 웃음을 팔기 위하여 일부러 배를 멈추고 접근한 것이 된다. 고향사람끼리의 만남이라는 喻守眞의 해설은 俞陛云이나 馬茂元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31)</sup>

세 번째 해설은 여인이 타향에서 고향 사투리를 구사하는 남성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순진하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설을 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沈熙乾이다.<sup>32)</sup> 그의 『唐詩大觀』에서의 관련 해설은 다음과 같다.

횡당에 거주하는 어느 한 여인이 배를 타고 갈 때 이웃 배를 탄 한 남성의 말소리를 듣게 되자 친진난만하게 그대는 동향 사람이 아닌가라고 묻는다. … “배를 멈추고” 물어본 데서 그녀가 고향을 떠나서 말을 나눌 사람도 없이 외롭게 혼자 바람 따라 물위를 떠돌며 숙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향에서 고향 사투리를 듣게 되자 타향이 고향인 듯하여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다.<sup>33)</sup>

31) 喻守眞에 앞서 『唐詩三百首』를 최초로 주석한 章燮 및 그 주석을 校正한 孫孝根이 이미 九江을 강서성의 구강이라고 풀이하고 또 여인의 직업이 비천하다고 해설했다. 단 章燮 및 孫孝根은 제1수가 여인의 질문, 제2수가 남성의 답변이라고 보았다. 그들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① 章燮註, 『唐詩三百首註釋』(권6, 石渠山房刻本, 光緒16년): 제1수: “未識君家住處, 先出自己鄉貫. 此首是問. 「一統志」: 吳自江口沿淮築堤, 謂之橫塘. 今在應天府, 近長干是. 沈歸愚曰, 不必作桑濮看.” 제2수: “九江詳二卷李白「廬山謠」詩注. 君欲知我家住於何處耶. 我家臨九江之水, 來去不離九江之側, 蓋同是長干里人, 特生小不相識耳. 此首是答.” ② 章燮註, 孫孝根校正, 『唐詩三百首註疏』(권6, 章福記書局石印, 上海, 民國4년): 제1수: “未識君家住處, 先出自己鄉貫. 又悟所事卑賤, 恐是同鄉被其所笑, 故停船暫住, 又問君家究係何鄉. 此首是問.” 제2수: “九江詳二卷李白「廬山謠」詩注. 君欲知我家住於何處耶. 我家臨九江之水, 原無定所, 或來或往, 不離九江之側, 未有常處耳. 總之同是長干之人, 因自小離鄉未返故土, 所以終不能相識也. 此首是答.” 章燮이 언급한 李白의 시는 「廬山謠寄盧侍御虛舟」의 “만 리 밖까지 누른 구름 끼어 풍경이 변환하고, 아홉 줄기로 나뉜 장강의 물결이 눈 덮인 설산을 흐르는구나”(黃雲萬里動風色, 白波九道流雪山)이고, 注는 “『尚書』禹貢九江孔安國注: ‘江於此州, 界分爲九道.’ 『潯陽記』云: 一曰烏白江, 二曰蚌江, 三曰烏江, 四曰嘉靡江, 五曰畎江, 六曰源江, 七曰廬江, 八曰提江, 九曰箇江”을 가리킨다.

32) 沈熙乾에 앞서 淸의 楊逢春이 이미 『唐詩偶評』에서 “人情離鄉久, 逢着同鄉人, 便情親, 卽疑爲同鄉, 亦必殷勤動問”이라고 하여 이 여인이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해설했다. 霍松林主編, 『萬首唐人絕句校注集評』(山西人民出版社, 1991, 太原) pp.235-236의 「長干曲四首·彙評」 참조. 또 百度의 자료에 따르면, 淸의 劉宏煦가 『唐詩真趣編』에서 “望遠杳然, 偶聞船上土音, 遂直問之曰: ‘君家何處住耶?’ 問者急, 答者緩, 迫不及待, 乃先自言曰: ‘妾住在橫塘也, 聞君語音似橫塘, 暫停借問, 恐是同鄉亦未可知’”라고 하여 이 여인이 남성의 사투리를 듣고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해설했다. 단 『唐詩真趣編』은 咸豐 연간에 각인본이 있으나 구하기가 어려워 원서의 문장과 미처 대조하지 못했다. 이 책의 대략적인 정보는 百度의 『中國古典詩歌要籍叢談』(第一輯, 歷代詩歌總集, <http://www.guoxuedashi.com/shumu/241386w.html>) 참조. 한편 근래의 연구자 가운데 黃永武(『中國詩學·設計篇』, p.112, 巨流圖書公司, 1980, 臺北), 王捷(『關於崔顥婦女詩作之我見』, 『西北民族學院學報』哲社版, 1989년 제1기, p. 96), 黃屏(앞의 책, p.560) 등도 여인의 질문의 계기가 鄉音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3) 『唐詩大觀』, pp.368-369(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4, 香港): “一個住在橫塘的姑娘, 在泛舟時聽到鄰船一

沈熙乾은 고향을 떠나 횡당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이 이웃 배에 타고 있는 남성의 고향 사투리를 듣고 문득 고향 생각이 나서 천진난만하게 고향이 어디냐고 남성에게 질문을 했으며, 남성 또한 구강 곁을 오고가는 떠돌이신세인데 이렇게 물 위에서 우연히 고향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sup>34)</sup> 그러나 沈熙乾은 이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모두 장간이라고 설명했고, 九江이 어디를 가리키는 지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sup>35)</sup> 沈熙乾의 해설에 따르면, 장간이 고향인 남녀 두 사람이 장간과 붙어 있는 횡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여인이 남성의 장간 사투리를 듣고 기뻐한 것이 된다. 이는 곧 남녀 두 사람이 고향에서 만난 것이어서 馬茂元이나 喻守眞의 해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단 여인이 남성에게 갑자기 질문을 한 계기가 사투리 때문이라는 沈熙乾의 견해는 뛰어나다.

위의 서술에서 「장간행」의 대표적인 해설들을 살펴보았다. 俞陞云과 馬茂元, 喻守眞 등은 모두 여인과 남성의 고향은 장간이며, 여인이 고향에서 우연히 고향 남성을 만났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고향에서 고향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거나, 고향 남자에게 웃음을 팔기 위해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시 자체의 설정이 어색해질 뿐더러 그다지 독자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게 된다. 沈熙乾만은 고향을 떠나 횡당에 거주하는 여인이 고향 남성의 사투리를 들었다고 해설했지만, 도리어 그는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장간이라고 해설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장간행」 제1수와 제2수의 여인과 남성의 만남 및 이 시의 성격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이 시에 대한 이해는 이 시의 시상 전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두 수의 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수

君家何處住: 여인이 남성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봄.

妾住在橫塘: 여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횡당임을 밝힘.

停船暫借問: 여인이 배를 멈추고 문득 물어보게 됨.

或恐是同鄉: 물어보는 까닭은 남성과 동향일까 추측했기 때문임.

#### 제2수

家臨九江水: 남성이 자신의 집의 소재지를 밝힘.

來去九江側: 현재 남성은 구강을 오르내리며 활동하고 있음.

同是長干人: 남성은 여인처럼 장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동류감을 표현함.

個男子的話音, 于是天真無邪地問一下: 你是不是和我同鄉? ... ‘停船’相問, 就可見她離鄉背井, 水宿風行, 孤零無伴, 沒有一個可與共語之人. 因此, 他鄉聽得故鄉音, 且將他鄉當故鄉, 就這樣的喜出望外.”

34) 武安國 또한 「장간행」 제1·2수가 외지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늘 가지는 고향사람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崔顥詩論」(p.25, 『南都學壇』, 1987년 2기, 河南 南陽)의 해설: “此詩通過一對萍水相逢的男女的對話, 表現了那些常年漂流在外的人們所常有的那種親切的鄉親情誼” 참조.

35) 沈熙乾, 앞의 책: “‘來去九江側’說明自己也是風行水宿之人, 不然就不會有這次的萍水相逢. 這裏初步點醒了兩人的共同點. ‘同是長干人’落實了姑娘‘或恐是同鄉’的想法, 原來老家都是建康(今江蘇南京)長干里” 참조.

生小不相識: 어려서부터 서로 몰랐기에 여인을 알아보지 못함을 아쉬워함.

이 두 수의 시는 시상의 전개가 아주 명확하다. 현재 횡당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이 배를 멈추고 낚선 남성에게 혹시 고향이 같은지 질문을 하고, 남성은 자신의 집이 구강에 있고 구강 곁을 오르내린다고 활동범위를 밝히면서 여인처럼 자신도 장간에 살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서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다시 시를 살펴보자. “君家何處住”는 횡당에 거주하는 여인이 남성의 집을 물은 것이고, “家臨九江水”는 “君家何處住”에 대한 남성의 답변이다. 곧 남성의 집은 구강인 것이다. 또 “同是長干人”은 “妾住在橫塘”과 호응하여 남성 또한 여인처럼 장간, 곧 횡당에 함께 거주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시의 풀이에서 필자가 제가들과 크게 다른 점은 “同是長干人”의 해석 문제이다. “同是長干人”은 “함께 고향이 장간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장간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횡당, 곧 장간에 거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고향에서 서로 만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여인이 고향에서 고향 남성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면, 시로서 서사구조가 어색할 뿐더러 예술성 또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장간은 두 사람의 고향이 아니라 현 거주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남성의 답변인 “家臨九江水”에서 九江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 구강은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없다. 구강을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이라고 풀이하면, 결국 이 여인과 남성이 고향에서 만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강은 현 강서성의 구강이어야 한다. 구강은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며, 두 사람은 타향인 횡당, 곧 장간에서 서로 만난 것이다.

위의 서술을 정리하여 이 두 수의 시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횡당에 거주하는 여인이 타향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문득 이웃 배에서 나는 고향 사투리를 듣고 남성에게 고향을 질문한다. 남성은 여인에게 자신의 집, 곧 고향이 구강이라고 밝혔는데, 이 구강은 여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남성은 여인에게 현재 자신이 여인처럼 장간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려서 서로 몰랐기 때문에 지금 여인과 마주쳤지만 여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同是長干人”을 “你和我的故鄉都是長干”의 의미가 아니라 “現在你和我都是住在長干的人”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호의 「장간행」 제1수는 淸의 王夫之로부터 극찬을 받은 시이다. 그의 『薑齋詩話』의 관련 언급은 다음과 같다.

그림을 논하는 사람은 ‘지척에 만 리의 勢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勢’ 한 글자에 착안해야 한다. … 오언절구에서는 이 勢를 착상할 때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데, 오직 성당의 시인만이 그 오묘함을 터득하였다. 예를 들면,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요? 저는 횡당에 살고 있어요. 배를 멈추고 잠시 물어보는 것은, 혹시 고향사람인가 해서요’와 같은 것은 먹의 기운이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나오니, 글자가 없는 곳에도 모두 그 뜻이 담겨 있다.<sup>36)</sup>

36)『薑齋詩話』: “論書者曰: ‘咫尺有萬里之勢’, 一勢字宜著眼. … 五言絕句, 以此爲落想時第一義, 唯盛唐人能得其妙, 如‘君家何處住, 妾住在橫塘, 停船暫借問, 或恐是同鄉.’ 墨氣所射, 四表無窮, 無字處皆其意也.”

王夫之가 五言絶句를 구상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勢”는, 張磊의 연구에 따르면, 문자 자체의 뜻과 言外의 뜻을 가리키는 말이다.<sup>37)</sup> 「장간행」의 제1수의 묘미는 제1구인 “君家何處住”의 여인의 질문에 있다. 이 여인은 배를 타고 가다가 문득 옆 배에서 나는 고향 사투리를 듣게 되고, 억제할 수 없는 향수에 남성에게 동향이 아닌지 질문하게 된다.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이 배에 의지하여 웃음을 파는 酒樓의 기녀이든, 아니면 장사를 하는 여인이든, 아니면 고기잡이를 하는 여인이든, 배를 멈추고 잠시 상대방의 고향을 묻는 그 순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 동안 겪어왔던 세파 등이 주마등처럼 여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王夫之가 「장간행」의 제1수를 “먹의 기운이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나오니, 글자가 없는 곳에도 모두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극찬한 까닭은, 비록 여인의 질문이 짧은 몇 마디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질문 속에는 오히려 미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言外의 뜻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최호의 「장간행」 제1·2수를 남녀 간의 사랑을 읊은 애정시로 보거나 웃음을 팔기 위해 일부러 남성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읊은 시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sup>38)</sup> 이 두 수의 시는 향수의 순수한 감정을 읊은 純正한 시로 보아야 한다.

#### 4. 제3수와 제4수의 내용 고찰 및 「長干行」 4수의 연작시 여부 검토

「장간행」의 제3수와 제4수는 비교적 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그 내용을 풀이한 연구자도 드물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시의 내용을 다시 소개한다.

##### 제3수

下渚多風浪, 아래쪽 모래섬에 풍랑이 일어,  
蓮舟漸覺稀. 연밭 따는 배가 점점 드물어져요.  
那能不相待, 어찌 기다리지 않겠어요,  
獨自逆潮歸. 홀로 조수 맞으며 돌아가게요.

##### 제4수

三江潮水急, 삼강에 조수 급하고,

필자의 번역은 조성천 역, 『강재시화』(pp.96-97,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서울)를 참조한 것이다.

37) 張磊, 「論王夫之詩評中的“勢”」(『唐山師範學院學報』, 제26권 제4기, 2004.07, p.7): “勢意味着言內之意與言外之意, 情語與景語的內在規律和微妙聯系” 참조.

38) 黃永武는 王夫之의 평어를 인용하면서 「장간행」의 제1수가 향수의 진정을 읊은 것이라고 해설하고, 이 시를 ‘春宮圖’로 보는 일부 논자들의 견해를 통박하였다. 黃永武, 앞의 책, pp.111-112: “試想一個長期流落在異鄉的人, 偶然聽到一口濃重的鄉音時, 必然忍不住移船借問, 那裏還會受世俗男女不相通問的拘束. 也就在這個迫不及待、不避嫌疑的純真問句中, 將‘天涯淪落人’那種五年十年、千里萬里、漂泊無定而鄉心未泯的真情, 一齊奔迸出來. 本詩言外的意思極豐, 張力甚強. 後人竟解作‘倚船賣笑’、‘羞澀自媒’, 都是把‘藝術品’去當作‘春宮圖’看, 簡直是一種糟蹋” 참조.

五湖風浪涌. 오호에는 풍랑이 일렁이구려.  
 由來花性輕, 본래 꽃은 성질이 가벼우니,  
 莫畏蓮舟重. 연밥 따는 배가 무거울까 겁내지 마시구려.

제3수와 제4수는 연밥을 따는 여인과 어느 남성의 화답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는 그 내용이 단순하고 표현이 솔직담백하여 악부민가 「長干曲」<sup>39)</sup>과 풍격이 유사하지만 여인과 남성이 주고받는 대화가 회롱조에 가까우며, 악부민가보다 시적인 감흥이 많이 부족하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제3·4수는 제1·2수와는 달리 『당시삼백수』에 선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두 수의 시는 “蓮舟”, “下渚多風浪”, “三江潮水急”, “五湖風浪涌”의 표현으로 살펴봐도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組詩, 곧 연작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3·4수와 제1·2수를 연작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곧 최호의 「장간행」 4수를 한 세트의 연작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장간행」 4수를 하나의 연작시로 보는 견해의 대표자는 俞陞云과 馬茂元이다. 앞의 서술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俞陞云은 『詩境淺說』에서 그리고 馬茂元은 『唐詩選』(上冊)에서 「장간행」 4수의 제1·2·3수만을 선록하고, 이 세 수의 시가 연밥 따는 여인과 청년의 사랑을 읊은 것이라고 해설했다. 馬茂元이 修訂本으로 출간한 새로운 『唐詩選』에서도 이러한 해설은 바뀌지 않고 있다.<sup>40)</sup> 또 俞陞云과 馬茂元 이후로 최호의 「장간행」 4수 모두를 언급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4수의 시를 연작시로 보고 있다.<sup>41)</sup>

그러나 필자는 「장간행」 4수를 연작시로 보는 견해에 의문이 없지 않다. 「장간행」의 제1수와 제2수가 연작시이고, 제3수와 제4수 또한 연작시임이 분명하지만, 제1수와 제2수는 타향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의 純正한 思鄉의 정서를 묘사한 것이고, 제3수와 제4수는 연밥 따는 남녀의 사랑의 감정을 묘사한 것이다. 장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정서를 묘사했다는 측면에서는 「장간행」 4수 모두를 組詩라고 일컬을 수도 있겠지만, 제1·2수와 제3·4는 그 내용이 판이할 뿐더러 작품의 격조 또한 크게 차이가 난다.

「장간행」 4수는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작시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장간행」의 제3수와 제4수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1수와 제2수의 내용을 설명하는 諸家의 해설에도 무리가 없지 않다. 필자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필자처럼 「장간행」 4수를 연작시가 아니라고 보는 연구자는 오직 莫礪鋒 한 사람 뿐이다.<sup>42)</sup>

39) 『樂府詩集·雜曲歌辭』에 수록된 「長干曲」은 다음과 같다. “파도를 무릅쓰고 일부러 그대를 맞으니, 마름 따는 나의 배가 바람에 일렁대도 겁내지 마세요. 첩의 집은 양자강 가에 있어, 수시로 광릉의 조수를 타곤 하지요.”(逆浪故相邀, 菱舟不怕搖. 妾家揚子住, 便弄廣陵潮.)

40) 馬茂元의 修訂本 『唐詩選』(上海古籍, 1999)은 최호의 「장간행」 4수를 모두 수록하고 해설했지만 「장간행」 4수가 組詩라는 그의 견해는 바뀌지 않았다. 「장간행」 4수에 대한 그의 評語: “這四首詩寫采蓮女子和青年男子相戀的過程: 兩人偶然水上相逢, 初不相識, 女娘却找出話頭和對方攀談, 終於并船而歸. 詩用對話體, 通過一問一答, 描繪出男女雙方的情態和內心活動. 用筆吞吐含茹, 屈伸盡妙” 참조. 이 책은 2017년에 上海古籍出版社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41) 각종 당시선집은 말할 것도 없고 崔顥를 연구한 모든 학위논문, 단편논문들도 「장간행」 4수가 組詩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편논문 하나만 예를 들면 李瑩의 「唐代“長干”詩考論」의 설명: “唐代“長干”詩多以組詩形式出現. … 如崔顥《長干曲》四首, 前兩首是初見時詢問對方住處等基本對話, 後兩首交談內容增加, 兩人交流越來越深入”(『現代語文』, 2009.06, p.30)이 그러하다.



## 5. 맺는말

崔顥의 「長干行」 4수는 모두 장간 지방을 음영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1·2수와 제3·4수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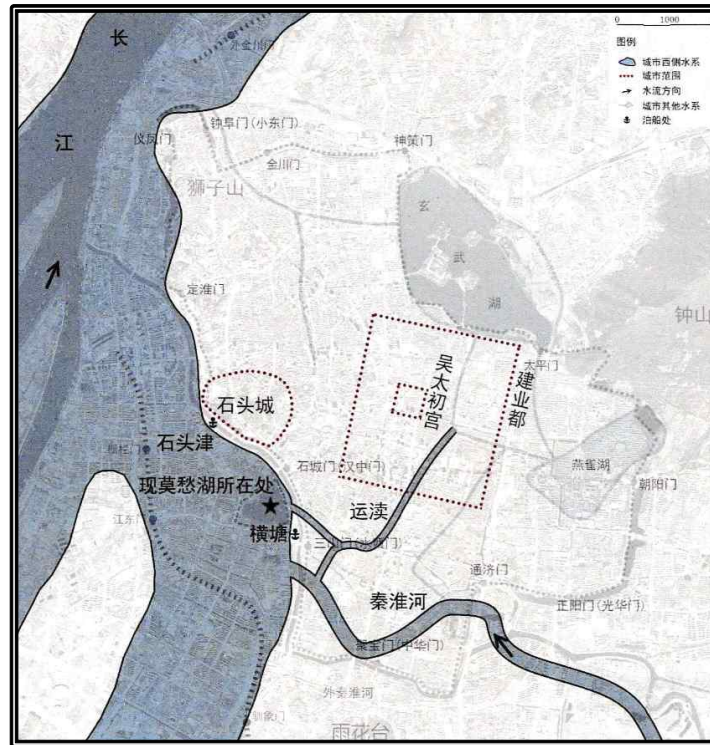
제1수와 제2수는 이 두 수의 시에 등장하는 橫塘, 長干, 九江 등의 지명이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여인과 남성의 고향을 어디로 보아야 할 것인가, 제2수의 제3구인 “同是長干人”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내용 이해의 관건이 된다.

횡당과 장간은 현 南京의 秦淮河 일대에 잇닿아 있던 제방과 동리의 명칭이며, 구강은 현 江西省 九江市를 가리킨다. 여인과 남성이 현재 거주하는 곳은 횡당 곧 장간이며, 고향은 구강이다. 여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웃 배의 남성에게 갑자기 고향을 질문하게 된 계기는 남성이 구사하는 고향사투리를 듣고 향수에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君家何處住”의 질문은 짧지만, 그 속에는 도리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에서 겪은 세파 등의 言外의 뜻이 넘쳐난다.

기존의 해설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同是長干人”의 長干을 두 남녀의 고향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들은 남성의 집이 있는 九江을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범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강이 장강 하류의 한 구역이면, 남성의 집과 현 거주지 또한 장간 부근이 되고, 남성의 고향 또한 저절로 장간이 된다. 그러나 구강과 장간을 남성의 집이자 고향으로 간주하면, 이 제1수와 제2수는 고향 횡당(곧 장간)에 거주하고 있는 여인이 고향땅의 강 위에서 마주친 고향 남성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질문한 것이 되며, 고향땅에서 주고받은 고향남녀 두 사람의 문답이 되어버린다. 그럴 경우에 이 두 수는 시로서의 흥취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 “同是長干人”에서 長干은 여인과 남성의 고향이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한다.

제3수와 제4수는 연밥을 따는 여인이 남성과 나눈 대화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제3·4수에서 남녀가 주고받는 대화가 너무 가벼워 오히려 악부민가 「長干曲」보다 시적인 감흥이 부족하며, 제1·2수와는 내용과 풍격 등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장간행」 4수 모두를 그 내용이 서로 이어지는 연작시로 보는 거의 대부분의 해설자들의 견해에는 무리가 있으며, 제3·4수에 근거하여 제1·2수의 내용을 설명하는 일부 해설자들의 견해는 성립되기 어렵다. 「장간행」 4수는 제1수와 제2수가 하나의 연작시, 제3수와 제4수가 또 하나의 연작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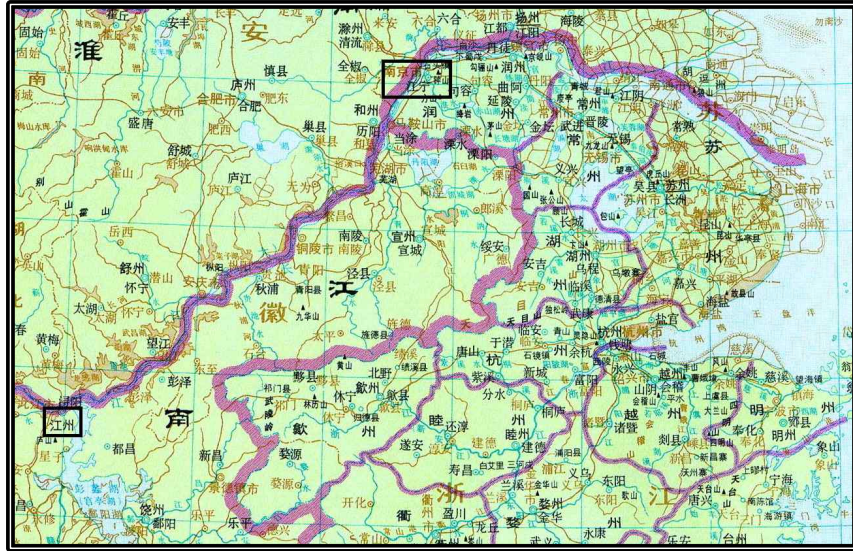
42) 莫礪鋒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崔顥的四首「長干行」其實可分爲兩組，第一、二首爲一組，即『唐詩三百首』中所選者。第三、四首爲另一組，原文如下：‘…’，基本上是對古辭「長干曲」的模擬，與前二首寫民間男女戀情內容不同，寫得也不太出色。”(莫礪鋒, 앞의 논문, p.50.) 단 莫礪鋒의 「장간행」 제1·2수에 대한 해설은 기본적으로 馬茂元의 해설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림1> 田夢曉가 제시한 三國시대 橫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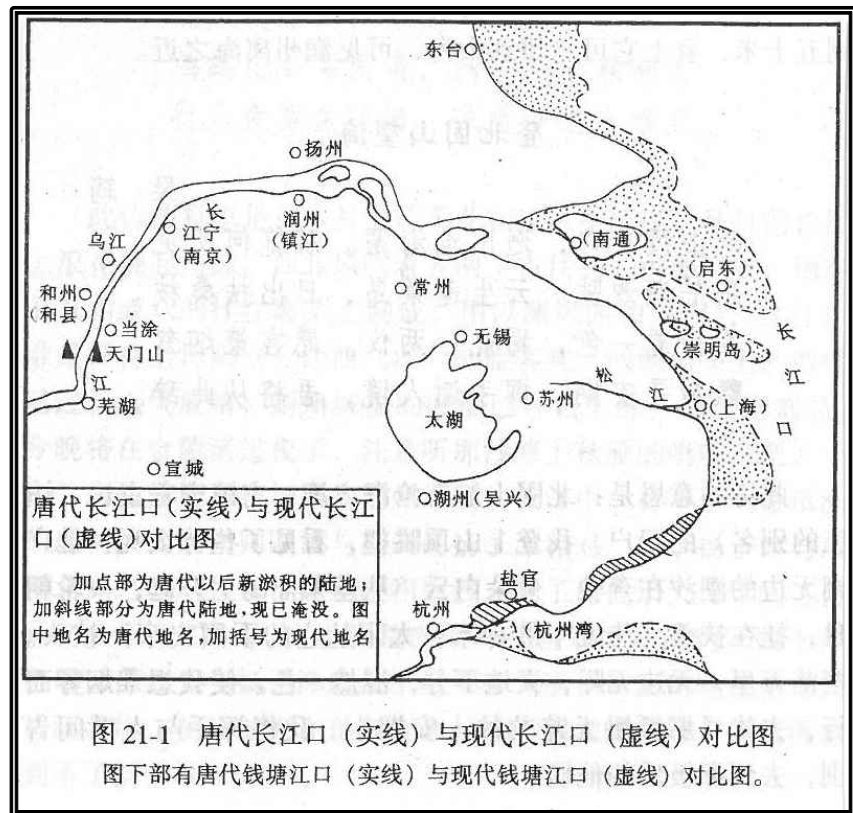


<그림2> 許志強이 제시한 六朝시대의 橫塘과 長干 지도



<그림3> 唐代的九江( 곧 江州)와 建康( 곧 江寧)

(譚其驤主編, 『中國歷史地圖集』第五冊, 「隋唐五代十國時期 — 江南東道」, 地圖出版社, 1982, 上海)



<그림4> 王曙가 제시한 唐代와 現代의 長江 河口

## 【참고문헌】

- 조성천 역, 『강제시화』,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서울.
- 霍松林, 『萬首唐人絕句校注集評』, 山西人民出版社, 1991.
- 南京地名大典編纂會, 『南京地名大典』, 南京出版社, 2012.
- 李 瑩, 「唐代“長干”詩考論」, 『現代語文』, 2009.06.
- 林 庚·馮沅君, 『中國歷代詩歌選』, 人民文學出版社, 1984.
- 馬茂元, 『唐詩選』, 人民文學出版社, 1960.
- 莫礪鋒, 「繁簡各得其妙的三首『長干行』」, 『文史知識』, 2011년 3기.
- 萬竟君, 『崔顥詩注·崔國輔詩注』, 上海古籍, 1985.
- 武安國, 「崔顥詩論」, 『南都學壇』, 1987년 2기.
- 房開江·潘中心, 『唐人絕句五百首』, 貴州人民出版社, 1981.
- 生力剛, 『唐代揚州交通與詩歌創作研究』,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2.
- 薛 冰, 『南京城市史』, 東南大學出版社, 2015.
- 沈熙乾, 『唐詩大觀』,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4.
- 王士禎, 『唐人萬首絕句選』, 文淵閣四庫全書本.
- 王 曙, 『新編唐詩故事集 — 黃河長江親情篇』, 北京工業大學出版社, 2001.
- 王 婕, 「關於崔顥婦女詩作之我見」, 『西北民族學院學報』哲社版, 1989년 제1기.
- 喻守眞, 『唐詩三百首詳析』, 中華書局, 1957.
- 俞陛云, 『詩境淺說』, 北京出版社, 2003.
- 張 磊, 「論王夫之詩評中的“勢”」, 『唐山師範學院學報』, 제26권 제4기, 2004.
- 章 燮 註, 孫孝根 校正, 『唐詩三百首註疏』, 章福記書局石印, 民國4년.
- 註, 『唐詩三百首註釋』, 石渠山房刻本, 光緒16년.
- 田夢曉, 『莫愁湖與南京城西側水系關聯性研究』, 東南大學 碩士論文, 2016.
- 趙宦光, 『萬首唐人絕句』, 書目文獻出版社, 1983.
-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唐詩選注』, 北京出版社, 1978.
- 陳 勇, 『唐代長江下游經濟發展研究』, 上海人民出版社, 2006.
- 鄒逸麟, 『中國歷史地理概述』, 上海教育出版社, 2007.
- 彭慶生·張仁健, 『唐詩精品』, 北京燕山出版社, 1992.
- 許志强, 「六朝建康長干里考略」,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제36輯, 2017년 2기, 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研究所, 上海古籍, 2017.11, 上海.
- 胡漢生, 『唐樂府詩譯析』, 北京大學出版社, 1997.
- 黃 屏, 『古詩海』, 上海古籍, 1992.
- 黃永武, 『中國詩學·設計篇』, 臺北: 巨流圖書公司, 1980.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崔顥, 長干行, 長干, 橫塘, 九江		
Key Words	영문	Cuihao, <i>Changganxing</i> , Changgan, Hengtang, Jiujiang		
<div>An Analysis on CuiHao's <i>ChangGanXing</i></div> <div>Ryu, Young-Pyo</div> <p>As for CuiHao's <i>ChangGanXing</i>, region names such as HengTang(橫塘), ChangGan(長干), JiuJiang(九江) appeared in the first sentence and second sentence. HengTang(橫塘) is an embankment that was built in QinHuai River of Nanjing. And JiuJiang refers to the city of JiuJiang(九江市). In the first sentence and second sentence, the place where woman and man currently reside is HengTang, that is the region of ChangGan. Moreover, their hometown is the JiuJiang. The woman was so nostalgic that suddenly spoke with the man. The question of '君家何處住' is short, but it is filled with the meanings of longing for her hometown. Furthermore, '同是長干人'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Our hometown is ChangGan', but rather than 'Both you and I are living in ChangGan'.</p> <p>As for the third sentence part and the fourth sentence part, A conversation with a man and a woman who wins the annual rice are described. However, the conversation with the man and the woman is too light that lacks inspiration as a verse. So both the content and style in the third sentence and the fourth sentence are inferior to the first sentence and second sentence. Therefore, four sentence parts of CuiHao's <i>ChangGanXing</i> are not serial poems in which the contents are linked to each other. The contents of the first and second numbers shall not be explain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third and fourth numbers. In CuiHao's <i>ChangGanXing</i>, the first sentence and second sentence may be in one series, and the third and fourth sentence be in the other serie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류영표 / 柳瑩杓 / Ryu, Young-Pyo		
	소 속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중국학과		
	Em@il	l2448@ks.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11월 21일	심 사 일	2019년 11월 28일
	수 정 일	2019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